

Japan Weekly Digest

2012. 2. 11. ~ 2012. 2. 17

□ 금주의 이슈

- 일본은행, 물가상승 목표 1%
- 사회보장·조세일체개혁안 각의 결정
- 일본의 작년 실질경제성장을 마이너스 0.9%

□ 일본기업전략

-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익 최고 수준
- 주세이카즈, 재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베트남 진출
- 미쯔비시상사, 캐나다에서 천연가스 공동개발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동경전력에 리소나 방식으로 출자
- 경산대신, 모잠비크와 자원개발협력 각서 조인

□ 보고서 리뷰

- 『교역조건으로 보는 일본산업의 미래』 후지쓰종합연구소, 2월11일



대한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은행, 물가상승 목표 1%

- 일본은행은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금융 완화를 결정하고, 장기국채 매입에 충당할 기금 규모를 10조엔 늘려 65조엔으로 확충
- 디플레이 탈출을 위해 「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목표」를 설정,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1%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임
- 일본은행이 추가금융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FRB가 1월, 초저금리정책을 들고 나왔을 당시, 일본 정부·여당에서 일본은행에 금융완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
 - 이에 따라 미·일간 금리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엔고·달러저 현상이 진전되는 국면도 있었음

□ 사회보장·조세일체개혁안, 각의 결정

- 일본정부는 17일,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한 「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안」을 결정. 민주당은 소비세율 관련법안 마감 일정인 3월말까지 여야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나 자민·공명 양당은 거부할 태세임
- 노다 총리는 개혁안에 대해 어느 정권이든 보류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계속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임을 강조하고, 정부·여당이 개혁안 실현에 전력을 기울려 줄 것을 지시
- 개혁안에는 사회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에 8%, 2015년 10월까지 10%로 단계적인 인상과 함께, 소비세 수입 전액을 연금 및 의료, 간병, 저출산대책 등 사회보장 관련 경비에 충당토록 명기

□ 2011년 일본의 실질경제성장율 마이너스 0.9%

- 일본의 2011년 실질 GDP는 506조 8883억엔으로 전년비 0.9% 감소한 것으로 내각부가 발표
- 2011년 4/4분기 실질GDP는 엔고, 세계경기 침체, 태국의 홍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(3.1%감소)로 전기비 0.6% 감소, 연율로는 2.3% 감소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수익 최고 수준

- 일본기업들은 해외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금 증가에 힘입어 2011년 직접 투자 수익이 전년비 34%나 늘어난 33조 8136억엔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
- 외국기업매수 및 공장건설 등 대외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일본으로 환류 움직임이 늘고 있으나, 아직은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낮은 편임
- 직접투자수익이 증가한 이유는 해외자회사의 수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직접 투자수익 중 배당금 수지가 2조 5000억엔의 흑자를 보임. 이중 1조엔 이상이 해외자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대 대형 상사의 해외자회사에서 벌어들이고 있음
 -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2008년 리먼 쇼크 직후 급감하였으나 최근 회복되는 추세로 2011년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비 85%가 증가한 9조 1180억엔

□ 쥬세이카즈, 재해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베트남에 공장 건설

- 쥬세이카즈(住生活)그룹이 약 300억엔을 투자, 베트남에 주택용 세시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10% 증강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일 계획. 생산제품은 우선 일본에 공급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에도 수출할 계획임
- 동사는 현재 태국에 주택용 세시공장이 있으나 작년 홍수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상태임. 태국에 이어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리스크를 분산시킬 목적임
- 쥬세이카즈의 베트남 협력회사인 LIXIL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는 INAX브랜드로 위생도기를 생산, 주로 현지판매하고 있으나 세시생산은 이번이 처음
- 베트남 정부는 작년 TPP교섭참가 의사를 표명하여 수출거점으로서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건비도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도 확보하기 쉬운 점 등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

□ 미쯔비시상사, 캐나다에서 천연가스 공동개발

- 미쯔비시상사가 캐나다의 대형 천연가스회사인 엔카나와 공동으로 천연가스인 셀가스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
- 미쯔비시상사는 약 2300억엔을 투자, 엔카나의 천연가스 광구(약1650평방키로미터)의 개발권 40%를 취득. 확인된 매장량은 약 9000억 입방피트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동경전력에 리소나 방식으로 출자

- 동경전력의 공적자금투입에 대해 에다노 경산대신은 리소나은행 방식을 언급. 즉 정부가 70%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리소나은행처럼 동경전력 의결권을 3/2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
- 첫째, 보통주로 출자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. 리소나은행은 2003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1조 9600억엔의 자금을 투입, 정부가 70% 이상 의결권을 갖게 됨. 이전에는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투입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중심이었음
- 둘째,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리소나은행은 JR동일본 출신 회장을 영입,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게 소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경산대신이 언급
- 셋째, 자본투입 후에도 주식상장을 유지한다는 것임. 「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」는 동경전력이 상장을 유지한 채 출자할 방침이어서 주주들에게 주당 이익감소 책임을 지울 예정. 상장을 유지하는 편이 출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음
- 리소나은행에 대한 자본투입은 예금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, 「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」는 「원자력손해배상기구법」에 근거하여 동경전력에 출자하게 됨. 동경전력은 폐로 및 연료구입 등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예상되어 「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」가 출자해야만 법적정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음
- 한편, 동경전력은 배상부담을 안으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이익금충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 전력제도 개혁으로 현행 송·발전 통합체제가 바뀌는 경우 동경전력의 수익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
-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리소나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9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 8000억엔이 미상환 상태이며 정부 의결권도 27% 남아있음. 동경전력 문제의 모델케이스라고는 하나 공적관리 이후 행방이 불투명함

□ 경산대신, 모잠비크와 자원개발협력 각서 조인

- 에다노 경산대신은 16일 모잠비크 광물자원상과 회담에서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위한 각서에 조인. 모잠비크는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(LNG)매장량이 풍부하여 신일본제철, 미쓰이물산 등 일본기업들이 권리 확보에 매진하고 있음

◆ 보고서 리뷰

『교역조건으로 보는 일본산업의 미래』

후지쓰종합연구소, 2월11일

□ 교역조건에서 본 산업별 미래

- 본 자료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별 교역조건이 변화되는 추이분석을 통하여 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음

□ 전자부품/정보통신제품의 교역조건 악화

- 전자부품/정보통신 분야에서 교역조건 악화가 두드러짐. 반도체, 집적회로 등 부품과 휴대전화기, 교환기, TV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제품은 1995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
- 엔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의 교역조건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, 대만, 중국 등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, 일본제품의 차별화 여지가 적어진 데 기인
- 이는 제품이 차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경쟁력이 밀리게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. 교역조건 악화의 요인을 엔고로 돌리는 식의 「엔고책임론」은 잘못된 것으로, 엔고 하에서는 오히려 교역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

□ 일반기계, 정밀기계는 가격인하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고 경쟁력 유지

- 반면, 정밀기계와 일반기계류의 교역조건은 20년간 변동이 없는데, 그 이유는 가격인하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임
- 이들 제품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자본재라는 점에서 커스터마이징(customize)나 A/S 면에서 차별화 여지가 크며,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제조업의 경쟁력패턴과 유사함

□ 주의를 요하는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경쟁력

- 자동차산업은 전기·전자산업처럼 장기적인 교역조건 악화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, 리먼 쇼크 이후 교역조건이 악화된 전기·전자산업과 같은 근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도 모름
- 이에 제품차별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품의 해외조달을 가속화시키는 경우 투입재의 가격인하를 통한 교역조건 개선이 가능함

- 철강은 제품차별화 여지가 적은 소재류로 그동안 고품질로 교역조건이 유지되어 왔으나 2003년경부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철강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. 향후 해외광산 개발 등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교역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

□ 시사점

- 제품이나 산업의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제품가격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기업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, 이러한 의미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column/opinion/201202/2012-2-4.html>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교역조건으로 보는 일본산업의 미래』 후지쓰종합연구소, 2월11일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column/opinion/201202/2012-2-4.html>

- (2) 『기업집적의 효과』 후지쓰종합연구소, 2월17일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report/research/2012/report-383.html>

- (3) 『무역적자에 관한 고찰』 내각부, 2월17일

*출처: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monthly_topics/2012/0216/topics_004.pdf

- (4) 『쿨저팬전략 기초자료』 경제산업성, 2월16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policy/mono_info_service/mono/creative/kisoshiryo.pdf

- (5) 『2012년도 일본경제/세계경제 동향과 전망』 경제기획협회, 2월16일

*출처:<http://www.epa.or.jp/esp/12w/12w02.pdf>

- (6) 『WTO 2020 : 21세기의 무역 거버넌스』, 경제산업연구소, 2월11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11020201/summary.html>

- (7) 『아시아 14개 도시에서 일본제품 이미지』 박보당, 2월21일

*출처:<http://www.hakuhodo.co.jp/uploads/2012/02/20120210GlobalHABIT.pdf>